

일제강점기 기독교철학의 정체성에 대한 일고

— 박형룡의 경우

최한빈 (백석대 기독교철학과 교수)

논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기독교철학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한국이 처음 서양의 근대적 문화를 수입하였던 시기, 특히 일본이라는 문화적 필터(filter)를 통해 서양의 문화를 수입하였던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삼는다. 서양의 대표적인 학문이요 문화라 할 수 있는 서양철학의 한국 수입은 일제 강점기라는 한국인들의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서양철학의 영향은 당시 한국의 일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철학의 정체성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 즉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황과 한국 개신교에게 찾아볼 수 있는 서양철학의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이 당시 서양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일제강점기의 개신교 지도자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인 박형룡을 주목하여 한국기독교철학의 정체성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핵심주제어: 일제강점기, 서양철학, 기독교철학, 한국 개신교, 박형룡

2007년 7월27일 접수; 2007년 8월16일 수정; 2007년 8월18일 게재 확정

*이 논문은 학진 과제명 "한국 근현대 서양철학의 수용과 '기독교철학'의 형성-한국 근현대 기독교사상가를 중심으로"(AS2012)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I. 서론
- II.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철학' 이란 명칭
- III. 한말, 일제 강점기에 수용된 서양철학
- IV.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 지식인들의 서양철학 수용
- V. 박형룡의 경우
- VI. 결론

I. 서론

"모든 문화는 진공상태에서 전수되거나 이식되지 않는다."는 명제는 문화수용이란 일정한 가치가 전제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에 이루어진 서양철학의 수용에서도 이 명제가 적용될 수 있다. 즉 한국 근현대 서양철학의 수용은 일정한 가치가 전제되어 이해되고 해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수용한 서양철학과 그에 따라 드러난 특징 연구는 그 자체로 한국 철학의 또 다른 한 면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역사에서 철학과 기독교의 만남이 서양철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능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근현대 서양사상 수용의 100년 역사는 서양철학과 기독교 이해의 한국적 독특성과 다양성을 낳았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제 하에 한국 개신교에 주목하여 한국 기독교철학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한 시도이다. 이 연구가 추구하는 한국의 기독교철학은 서양의 중세 기독교철학과 다르며 미국과 네덜란드의 소위 현대 기독교철학과도 다르다.¹⁾ 한국의 기독교철학은 기본적으로 한국 기독교사상가들의 다양한 역사적

1)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철학자는 대표적으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와 앨빈 플랜팅가(Alvin Plantinga) 등을 들 수 있으며, 네덜란드의 현대 기독교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헤르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볼렌호벤(Dirk Hendrik Theodoor Vollenhoven) 등을 꼽을 수 있다.

경험과 자기 이해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양사상이나 동양사상 기타 다양한 사상이 시대마다 독특한 강조점을 가지며 개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국 기독교사상가들의 경험과 연구 결과 중 일제 강점기 서양사상을 접한 개신교 기독교사상가들로 그 범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연구가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개신교 기독교사상가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서양사상을 수용하였으며, 그들이 기독교라는 신앙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명하는데 서양사상을 어떻게 수용, 해석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이러한 목적 하에 한국개신교 신학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박형룡이란 인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해명하고자 하는 과제, 즉 한국 기독교철학의 정체성 해명은 지극히 방대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연구에서 시도하는 연구 방법을 그러한 과제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아직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개신교 기독교철학의 정체성을 위한 예비적이고 실험적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이러한 제한적 연구가 한국 기독교철학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구성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바람이다.

II.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철학"이란 명칭

이 연구가 지향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철학"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겠다. 서양의 경우 기독교철학은 서양 중세 1000년의 철학을 의미한다. 이 철학을 기독교철학이라고 함은 철학자와 철학의 주제가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양 중세 기독교철학은 현대 학문 분류에서 종교철학이란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양 중세 기독교철학의 연구 주제는 철학의 주요 주제인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물론 서양 중세 기독교철학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세계관과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교철학에서 다루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 기독교철학도 서양 중세 기독교 철학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독교라는 일정한 종교적 세계관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연구한다면 한국에서도 기독교철학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철학적으로 연구한다 함은 철학연구의 방법론과 주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기존의 철학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철학적 방법론은 논리적 추론과 비판적-자기반성적 태도를 의미하고, 철학적 주제는 기존의 철학 분야를 의미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방법론과 주제 분류에 따라 한국 기독교철학을 해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둘째, 이러한 방법론과 주제 분류만이 철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의 철학적 방법론과 주제 분류 방식에 맞으면서도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이유는 소위 한국 기독교철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특히 개신교)와 한국의 철학계에 있다. 한국 개신교는 철학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 개신교 신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철학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예는 드물다. 그나마 철학을 접할 수 있는 신학과목으로는 조직신학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조직신학은 교리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의학(dogmatics) 중심으로 놓기 때문에 철학적 방법론을 교리의 변증 차원으로만 다룬다. 한국의 철학계는 기독교철학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나 혹은 긍정이 부족했다.²⁾

서양철학의 경우, 중세철학 이후, 특히 19세기 서양철학은 반종교적, 반기독교적 분위기를 뚜렷이 드러냈다(Dooye Weerd, 1994 서문). 그런데 한국 철학계는 서양철학을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반종교적 성향을 가진 서양철

2) 한국기독교철학회는 손봉호, 강영안 등을 중심으로 1998년 4월 창립되었고, 2005년부터 "기독교철학"이란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철학전공분류에는 기독교철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학을 도입하였고(이훈, 1994: 121) 현재까지도 한국 철학계는 서양철학의 반종교적 성향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한편 이와 같은 철학계의 반종교적 성향에서 일본의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서양철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던 1920년대부터 서양철학에 대한 한국적 이해는 일본의 서양철학 이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⁴⁾ 그런데 일본의 서양철학의 수용은 서구적 근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계몽주의적인 철학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조영란, 1994:165-175).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학자들은 서양철학의 기저에 놓여있던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서양철학의 일본식 수용은 그것을 통해 서양철학을 이해하였던 한국 철학계의 반종교적 정서를 설명하는 데 한 요인이 된다.

한편 기존의 철학적 방법론과 철학적 주제에 대한 고착된 기준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철학이 일반 개별학문과 구별할 수 있다면 철학적 연구가 개별적 주제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진리 혹은 의미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철학적 고유 주제를 형이상학, 윤리학 등으로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⁵⁾ 종교 역시 철학 못지않게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근원적 의

미와 전체적 조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종교는 기존의 철학적 주제와 다른 주제를 내걸고 있을 뿐이다. 흔히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한다는 조직신학도 그 구체적인 사안을 자세히 접하면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와 체계적인 서술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철학적 주제를 명시적으로 내걸지 않았다고 해서 다양한 기독교 사상을 비철학적 연구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철학의 기존 방법론과 분류를 고집하는 학계의 고루함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국 기독교철학의 성립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계와 철학계가 갖고 있는 기존의 기준을 유보한다면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기독교 지식인들이 제시한 견해 또는 사상을 한국 기독교철학이라 명명해도 무방할 것이다.

III. 한말, 일제 강점기에 수용된 서양철학

1. 자유주의와 사회진화론

한말 개화를 위해 수용된 대표적인 서양의 철학은 자유주의 사상이다. 개화 사상가들은 '인간,' '개인,' '자유,' '진보'와 같은,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서양의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고 이를 제도화 함으로써 서구식 근대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개화 사상가들이 수용했던 자유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사회진화론과 중첩되면서 제국주의와 친화력을 갖는 사상이 되기도 하였다(이나미, 2001:145-146).

사회진화론은 영국의 사상가 허버트 스펜서가 19세기 중후반의 서양 사회 사상을 주도했던 다윈의 진화론을 그대로 인간사회에 적용시킨 이론을 말한

3) 한국에서 서양철학 전공자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철학계는 철학연구에서 기독교 신앙을 연계시키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서양철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명목상 종교를 무엇으로 제시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명목상 종교와 자신의 전공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싶다. 종교를 갖는 것이 하나의 세계관 내지는 신념체계를 갖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철학함과 신앙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한 인격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최소한 그 인물의 세계관은 모순적 혹은 분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에서 본격적인 서양철학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25년 경성제국대학의 철학과 설치에서부터이다. 이 때 철학교수는 모두 일본인 교수였다(윤사순, 2000:330, 348). 국내에 서양철학의 주요 개념을 처음으로 번역, 소개함에 있어 많은 부분 일본학자의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강영안, 1995).

5) 폴 틸리히와 같은 학자는 『믿음의 역동성(Dynamic of Faith)』에서 "궁극적 관심"을 가진 인간 존재에 신앙을 정초하고 있다. 철학의 주제화 하는 근

원적 의미 내지는 전체적 전망은 역시 이러한 "궁극적 관심"에 기초를 두고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다. 사회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는 일종의 유기체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차원이 생존경쟁, 자연선택(우승열패)에 따라 진보한다(박성진, 2003:24). 이와 같은 사회진화론은 180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주로 일본과 중국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수용되었다(박성진, 2003:32).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진화론 추종자인 유길준은 1881년 일본 시찰단원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진화론을 후쿠자와 유키지 그리고 도쿄대 초빙교수로서 일본에 사회진화론자를 전파한 미국인 교수 모르스로부터 사회진화론을 배우게 된다(윤사순·이광재, 2000:268).

일본의 지식인과 한국의 지식인이 사회진화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미국의 영향 때문이다. 미국은 1850년대 이후부터 국제적인 팽창주의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팽창주의는 서부 개척의 시간적·공간적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자본주의적 팽창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이었다(윤사순, 2000:271). 후쿠자와 유키치는 유럽과 미국을 둘러본 후 사회진화론을 담은 여러 저술을 일본에 출판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의 경우, 유길준은 사회진화론을 조선의 개화를 서양식 근대화로 이해하고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을 그 발전 모델로 삼아 국내에 전파시켰다. 또한 그는 사회발전의 추진력을 진화론적인 생존경쟁으로 이해하여 일제 식민지 지배를 사회발전의 전단계로 이해하였다(박성진, 2003:23).

『독립신문』의 주요 논설가인 서재필과 윤치호 역시 사회진화론을 빌려 국민에게 세계정세의 현실을 알리고 국가 근대화의 필요성을 계몽시키고자 했다. 특히 한국 최초의 감리교신자인 윤치호는 『독립신문』의 주요 논설가로서 신문물을 통해 국내에 사회진화론 시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전복희, 1996:117-134).

한국에서의 사회진화론의 실제 영향은 다양하다. 사회진화론은 개화 사상가들의 의해 한국 사회의 근대화 발전 이론으로 작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내부로부터 정당화하는 이론으로도 작용하였다. 그런데 사회진화

론의 영향은 1930년대 일제의 전시체제의 돌입과 강제된 내선 일체론의 등장과 함께 사라진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시체제와 내선 일체론은 천황제 파시즘을 위협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진화론은 비록 근대화를 위한 이념으로 적극 수용되었지만 1930년대 일제의 통제를 경험하고부터는 식민지 지배를 체념하는 지식인들의 패배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박성진, 2003:8-11).

한편 기독교계는 사회진화론과 같은 자유주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192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 교계 인사들은 기독교와 자유주의 간의 사상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모두 낙후한 조선을 개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주의가 가진 민권사상 등은 기독교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과학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종교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 발전됨에 따라 한국 교계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1920년대부터 한국 교계에 소개된 소위 "자유주의적 신학"이라 불리는 진보적 신학은 소위 보수적 신학계로 하여금 자유주의의 핵심 주제, 즉 과학, 이성 등에 대하여 분명한 경계 자세를 취하게 된다.

2. 독일관념론과 마르크스주의

1915-29년에 출판이 확인된 서양철학 전체 자료는 61권이었다. 이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44년에 109권으로 앞선 시기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⁶⁾ 같은 시기의 글들이 다루고 있는 철학사조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독일관념론과 마르크스주의이다(이훈, 1994: 126). 이러한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에 수용된 서양철학의 특징을 드러낸다. 우선 특이한 점은 철학사조 면에서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관념론과 마르크스주의가

6) 이훈 (1994),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철학사상』 4호, 121.

비슷하게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철학을 수용한 지식인들이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응을 두 방향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철학도로서 식민지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⁷⁾ 그러나 식민지 현실에 대한 지식인들이 대응방식에서는 차이를 드러낸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독일관념론을 수용한 것은 무엇보다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이다. 일본의 독일 관념론 철학의 수용은 명치정부에 의한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서양식 근대화를 위해 명치정부 초기에 적극 수용을 유도한 영불의 계몽주의 철학은 자유민권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명치정부에 대항하는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에 명치정부는 위로부터 개혁을 본격화하던 1886년대부터 영불 중심의 계몽주의를 탄압하고 사회진화론 및 독일관념론 수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조영란, 1994:168-169). 한국의 독일관념론 수용은 이와 같은 일본의 서양철학 수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편 해외 유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초의 해외 유학생인 김중세는 일본을 통한 독일철학 수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독일 베를린 대학으로 가서 철학을 공부한 인물이다. 그러나 김중세의 경우와 같이 일본을 통하지 않은 독일철학의 수용도 사실은 일본을 의식한 결과다. 즉 당시 지식인들이 독일관념론을 수용한 것은 일본 정부와 같은 국가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아틀라스 콤플렉스(Atlas complex)" 때문이라 할 수 있다(윤사순, 2000:302-303). 당시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현실 속에서 일본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서양철학을 이해함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의 자존심을 지켜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발표된 자료에서도 형이상학이나 존재론 같은 가장 추상적인 철학적 주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7) 1957년 정종교수가 이미 50대가 된 당시의 철학도를 대상으로 한 '나는 왜 철학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설문 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일합방으로 인한 조국 상실이라는 절망적인 조건이 크게 영향을 주어서"가 아니면 "3. 1운동의 직간접적 가담자로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자 수난의 일방적 담재자이기도 하였던 것"이 철학 공부를 결심하게 된 동기였다고 밝히고 있다(윤사순·이광래, 2000, 327).

것도 이와 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이훈, 1994: 130).⁸⁾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독일관념론 연구와는 다른 지식인들의 대응이었다. 1917년 러시아혁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국내 지식인들은 3.1운동의 실패 후 민족해방을 위한 새로운 이념적 지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이르게 되는데 이 때 유입된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볼셰비즘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수용은 민족주의의 한 발로였다 (김재현, 1995:139).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립되고 급속도로 사회주의 진영이 확산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1936년 이른바 일제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과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당시 국내에서 철학을 연구하던 지식인들도 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최초의 철학 학술지 『철학』의 편집, 발행인인 이재훈이 사상범으로 구속되고 『철학』은 강제 폐간되었다. 1958년 휘문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훈은 58년 『사상계』 9월호에 기고한 「잊혀지지 않는 것」이란 글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심문이 시작.(중략) 잠시 후 점차 개인의 행복과 사회 개조의 문제에 들어가자 공산주의에 대한 비평을 하였더니 그는 그물에 걸린 고기를 놓쳤다는 직감했음인지 성을 내며 어조를 높여더니....(중략) 나는 한마디로 논변하였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약소민족이 문제가 되어 있으나 여기서 논의된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에서는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자결주의의 민족주의는 국가적 독립을 중국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에 있어서 국가는 지배 계급의 착취 기관이므로 경제적 평등 사회가 도래하는 날에는 사멸된다는 것이다. 내가 마르크스주의에 다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입장에서부터 정통 철학을 공격하는 것이 현재

8) 이훈(1994: 130)

철학계의 하나의 조류가 되어 있기에 정치적 관심을 떠나 순전히 학문적 입장에서 나는 학자적 양심을 굽히지 않으려는 진실한 윤리적 열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윤사순·이광래, 2000: 347-347)

위의 글을 통해 당시 철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이재훈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하나의 철학계의 조류에 따른 것이라 증언하고 있다. 그의 증언은 취조 중에 나온 것이므로 당시의 철학계 전체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일반논문이 1915-29, 1930-44년 기간 동안 각각 13편, 17편이었는데 비해 해방 후 시기인 1945-49년에는 2편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시기의 마르크스주의 관련 전체 자료 17편 중 나머지 15편은 책으로 분류된다(이훈, 1994: 121). 또한 이 시기는 앞선 시기보다 짧은 시기이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적은 수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철학연구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하나의 조류로 여겼다고 추정해 볼 근거가 된다. 게다가 일제 사상통제가 사라졌기에 이 시기에는 더 많은 마르크스주의 논문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IV.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 지식인들의 서양철학 수용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 지식인들의 대부분의 활동은 각자 이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기독교 지식인들의 활동의 장은 크게 계몽운동과 독립운동 그리고 기독교 교계였다. 이와 같은 실천의 장은 기독교 지식인들의 서양사상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된다.

계몽운동과 독립운동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한 기독교지식인은 윤치호와 이승만, 신홍우, 안창호, 김규식, 이상재, 이동녕, 이승훈, 이동휘 등을, 그리고 기독교 교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사람은 최병현, 채필근, 송창근, 박형룡, 김

교신, 함석헌⁹⁾ 등을 들 수 있다.

두 진영의 기독교 지식인들은 일제 강점기 여타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지배 현실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가 계몽운동과 저항운동처럼 교육과 정치적 활동으로 해결을 모색하였다면 후자의 경우는 기독교 교회를 충실히 하는 활동 그리고 이에 필요한 신학 연구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운동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였다.

계몽운동과 독립운동 계열에 서 있던 기독교 지식인들은 활동의 주요 이론으로 서양의 계몽사상, 자유주의, 사회진화론, 마르크스주의 등을 수용하였다. 기독교 교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주로 미국의 개신교 신학이론을 수용하였다.¹⁰⁾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서양사상을 수용하였는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당시 기독교 지식인들이 다양한 사상을 수용함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자기정체성(Identity)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논문이 관심을 갖는 기독교철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따른 사상이므로 기독교 지식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그것을 기독교철학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한 기준은 자신들의 지적 활동에서 기독교적 자기정체성을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계몽운동과 독립운동 계열의 기독교 지식인들이 수용한 서양철학인 자유주의는 처음에는 기독교적 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듯하였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없어 보였다. 실제로 당시 자유주의로 수용된 천부인권설과 자유와 평등 이념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이 수용한 자유주의 중

9) 김교신과 함석헌은 무교회주의자로 분리되어 기존의 교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무교회주의도 일종의 교회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므로 기독교 교계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여기서 김교신과 함석헌은 예외이다. 이들의 기독교 이해는 일본의 무교회주의자인 우찌무라 간조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양현혜(1994) "제 2부 김교신의 신앙과 '조선산 기독교'" 참조

일부는 제국주의와 친화력을 갖는, 과학이라는 명분을 갖고 미국에서 유행한 사회진화론이었다. 당시의 이들이 문명국의 가치로 여긴 자유와 평등은 사회진화론에 따르면 생존경쟁, 우성열패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미국의 지원과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이 생각한 개화의 구도는 자연스럽게 개화=서구화=미국화=일본화였다(이준식, 1993:15-16). 따라서 자유주의를 수용한다는 것은 식민지 현실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민족과 독립이란 가치를 상대적인 것으로,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념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분화 하는 세계관을 뜻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곧 민족운동의 포기를 의미한다. 윤치호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 인물이다(양현혜, 1994, 제 1부). 이러한 경우는 비록 기독교적 자기정체성과 사상의 수용 그리고 현실인식이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한국 기독교철학의 이상적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특수한 문제와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의 선택, 즉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여운형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한 인물이다(이준식, 1993:23). 다른 선택지는 기독교 신앙과 한국의 식민지 현실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를 이원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지도하는 원칙이었다.¹¹⁾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기독교의 현실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은 신홍우와 이동휘였다. 이들은 식민지 현실을 타계하기 위

한 기독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사상적 파트너로 선택하였다(김상태, 1993). 비록 이후의 많은 기독교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신홍우와 이동휘에게는 그러한 대립을 발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신홍우와 이동휘는 신학자나 사상가이기보다는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과 함께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여 해석하고 수용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계몽운동과 독립운동 계열의 기독교 지식인들보다는 기독교 교계 인물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박형룡은 이 경우에 해당되는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자유주의를 신앙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세계관에 입각한,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교만한' 사상으로 본다. 이런 면에서 그는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구의 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의 기독교철학자라는 지위를 얻는 데는 한국의 기독교 지식인으로서 어떤 특수성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V. 박형룡의 경우

죽산(竹山) 박형룡은 일제강점시기 중 특히 1930년 이래 한국 개신교계에 서 정통주의(혹은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로 일컬어지는 신학자요, 한국교회의 신학전통을 기초 놓고 이를 파수, 계승해가는 50여 년간의 변증과 대결, 그리고 투쟁의 역사 중심에 선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한국 보수적인 신학계(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평가되면서 한편으로 한국 장로교 분열의 책임자로서도 지목되기도 한다.

1887년 평안북도 벽동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당에서 유교교육을 받았던 박형룡은 고향의 벽동교회에서 십대 유년기에 회심한다(장동민, 2006:25-26). 이후 박형룡은 선천의 신성중학교(1914-6), 평양의 숭실전문학교(1916-20),

11) 이준식(1993: 16-18). 선교사들의 한국 교회를 지도하는 원칙은 한국의 19세기 말 최초 선교시기와 일본의 강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소위 문화정치기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통한 개화운동, 즉 한국의 발전을 꾀하였다. 즉 기독교신앙의 수용과 한국민족, 사회 발전을 동일 선상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식민지란 현실이 굳어진 1920-30년대에 이르러 선교사들의 한국교회 지도원칙은 일종의 교회와 식민지현실 문제를 분리시켜 대응하는 방향으로 잡혀지게 된다.

남경의 공능대학(1921-23)을 거쳐 미국 프린스턴신학교(1923-26)에서 수학하고 신학사와 신학석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1927년 9월까지 남침례교 신학교(Southern Baptist Seminary)에서 9개월간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하였다. 1933년 국내에서 쓴 "자연신학으로부터의 반 기독교적 추론"(Anti-Christian Inferences from Nature Science)이란 제목을 남침례교 신학교에 제출하여 기독교 변증학 전문가로서 철학박사 학위를 얻게 된다(이상규, 2005: 188). 미국에서 귀국 후 8년간, 1935년 박형룡은 국내 최초의 방대한 신학적 저술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선평』을 저술하기도 한다.¹²⁾ 박형룡은 이 저서를 통해 서양의 최신 신학을 소개하고 최근의 과학론과 종교론을 기독교 변증학적 차원에서 비판한다. 또한 당시 한국 기독교계에 퍼져 있었던 제 신학 사조를 분류,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신학지남 등에서 소개된 그의 단편적 논문에 비해 그의 사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저서라 할 수 있다(장동민, 1988: 145).

일제 강점기라 해도 1920-1930년 한국 기독교계의 상황은 외국 선교사들의 개척단계에서 발전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안정기에 들어선다. 신학 또한 선교사들에 의한 '신학정초기'를 벗어나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당시 한국 기독교 신학의 발전은 외적인 교세확장에서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그 당시 유입된 서양 사상에 의해 자극된 바가 적지 않다(장동민, 2006:98). 그 당시 유입된 신학 사상은 크게 공산주의사상과 자유주의계 사상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현대주의 혹은 세속주의라는 것이 있었다. 이 사상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 이성과 발전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 할 수 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시절부터 이러한 사상들이 지닌 반 기독교적 성향을 경험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프린스턴 신학교의 기독교 변증학을 수학하였던 박형룡은 동일

12) 박형룡 저작전집 총 20권 중 제 8권과 9권에 실려 있는 이 논문은 1935년 판을 조금 수정한 것으로서 그 제목도 『현대신학선평』으로 변경하였다. 수정판에서 일부 현대적 신학 사상이 새로 들어가 있지만 내용상 커다란 변화는 없고 절이나 장들의 제목을 시대에 맞게 바꾼 정도라 할 수 있다.

한 사상이 한국에 유입되었을 때 그것이 갖는 사회 변혁적 차원보다는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맞서 대항할 대상으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우선 박형룡이 심각하게 상대하였던 것은 무엇보다 과학으로 치장된 자유주의계의 다양한 이론들이었다. 박형룡은 프린스턴의 기독교 변증학을 계승하여 기본적으로 과학을 인정했지만 한편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현재의 과학적 추론을 잘못된 과학, 교만한 과학으로 공격하였다.¹³⁾ 당시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과학 이론이었던 진화론과 고고학적 성과의 경우, 프린스턴의 박형룡의 스승들이 그러하였듯이 박형룡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성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이성적 성과물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다. 이는 서양의 자유주의적 사상을 비판적으로 해석, 수용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이와 같은 해석, 수용이 한국사회 혹은 한국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특수하고도 주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1935년의 『기독교 근대 신학 난제선평』은 박형룡이 한국의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책은 총 18장 847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1장에서는 소위 정통신학의 내용을, 그리고 2장부터 17장까지는 당대 유행하던 신학이론과 정통교회에 도전할 수 있는 과학론, 종교론 등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18장 "한국교회의 이사상(異思想)"에서 한국에서 당시 유행하던 제 신학이론들을 제 1장의 정통신학의 기준에 따라 분류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 대해 장동민은 18장이 2~17장을 서술하게 하는 주체적인 동기라 한다(장동민, 1998:146). 여기까지만 보면 박형룡의 연구나 태도는 한국 기독교철학이란 범주에 분류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박형룡이 구체적으로 독창적인 어떤 사상을 제시하

13) 장동민(1998: 102-116).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시되는 과학에 대한 그의 비판적 접근은 과학의 잘못된 추론에 대한 공격이었지 과학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 아니었다.

고 있는가 하는 데 이르면 제동이 걸린다. 박형룡은 한국의 다양한 이사상(異思想)의 원인을 비정통주의 기독교의 흥기로 본다(장동민, 1998:147). 이는 서양의 개혁주의 기독교를 정통으로 보고 그것에 견주어 한국의 신학을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 서면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는 신학 사상은 단지 이사상(異思想)에 불과한 것이거나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박형룡의 입장은 일제 식민지란 외적 상황과 한국 개신교 선교의 50년 역사와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상규, 2004: 204). 장동민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박형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고, 지역적 역사적 사회 경제적 특성은 신학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음은 그것이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든 한국 목회자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든 동일한 것이고, 그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억압을 받는 민중들이든 새로운 중산계층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동민은 이러한 박형룡의 입장을 방법론상의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의 안목과 비판이 정당하였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민족교회의 수립이나 한국적 신학의 창달과 같은 특수한 논제를 중심으로 삼다가 복음의 보편성을 등한시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복음의 보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자(장동민)가 보기에는 훨씬 당시 한국교회와 역사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서양철학 혹은 서양사상은 서양식 근대화의 한 과정으로 또는 식민지 현실의 극복을 위한 도구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수용된 서양철학이 개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일제 식민지 현실을 인정하거나 제국주의적 세계 현실을 추인하는 방식으로든 기능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또 다른 서양철학 또는 서양사상인 서양 기독교 신학 역시 이러한 두 가능성을 모두 갖는다. 박형룡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서양의 자유주의적 사상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해석, 수용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는 서양의 특정한 신학을 정통으로 수용하였다. 왜냐하면 박형룡은 소위 '개혁주의적 신학'을 복음에 가장 충실한 신학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수용하였던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미국과 화란이란 개혁주의 큰 두 갈래에서 유독 미국의 개혁주의적 신학에 의존한 바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박형룡이 정통신학 이해에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신학자는 벌코프(Louis Berkhof)인데, 벌코프가 가졌던 화란 개혁주의 성향, 즉 사회나 문화에 대한 개혁주의적 성찰을 박형룡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규는 이러한 박형룡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칼빈 이래로 최대의 칼빈주의자 신학자로 불리는 아브라함 카이퍼에게서 볼 수 있는 칼빈주의적 세계관은 빈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에게 그런 세계관적 체계나, 박형룡의 표현처럼 문화에 대한 지로(指路)가 있었다면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오늘 현실에서 보는 신앙과 삶의 이원론적 괴리를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이상규, 2005: 206)".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한국 기독교철학의 정체성을 해명하는 데서 박형룡이 차지하는 지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박형룡은 한국 개신교 장로회, 특히 보수를 자부하는 합동측의 중요한 신학자였으며 소위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의 보수적 신학은 현재까지 한국 개신교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양철학 혹은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현실을 이해하고 또 한국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박형룡 신학을 향해 던져 보았을 때 두루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이상규의 지적 즉 "신앙과 현재의 삶의 이원론적 괴리"를 복원하는 체계적인 기독교세계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관이 부재한 원인은 그의 신학이 일제 식민지 현실과 씨름하거나 해결하려는 세계관으로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또한 그의 신학이 정

통신학을 수립하는 데에만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현실 참여를 위해 기독교 지식인들이 수용한 서구의 사상과 기독교 신앙이 모순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신앙적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때, 그의 신학이 정통이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적 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을 한국의 보수적 교계가 정통으로 인정한 것을 그 후 50여년의 세월이 지나서였기 때문이다.

박형룡 외에 일제 강점기 그 많은 기독교 지식인의 활동은 한국 기독교철학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제까지 연구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당시 기독교 지식인의 활동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보았다는 데 있다. 이후 보다 많은 인사들에게 이 방법론을 적용,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논자의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박형룡의 저작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논자에게 남아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최근에 일기 시작한 한국 근대 지식인들의 서양철학 수용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 기독교 지식인들의 경우를 누락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근대 기독교 지식인들이 전문적인 철학적 연구 결과를 보여 주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철학적 연구 결과만을 통해 철학 연구라는 특징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의 입장에 치우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서양철학을 처음 수용한 당대 한국 근대 지식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이기도 하다. 철학 연구의 방법과 분야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갖는다면 일제 강점기 한국 근대 지식인들로부터 보다 풍부한 철학적 활동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문화적 자료의 풍족함은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다. 처음 이 논문은 한국의 기독교철학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수행하는 데 닥친 첫 번째 어려움은 역사적 자료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현실이었다. 즉 서양철학 수용 초기에 한국 기독교와 서양철학의 만남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그 당시에 기독교와 서양철학의 주목할 만한 만남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이 두 가능한 이유에서 나중 것을 유력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분명한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에서 유독 철학과 사상분야만 제외되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이 기독교와 철학의 만남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철학에 대한 기독교의 부정적 시각과 기독교에 대한 철학계의 부정적 시각 때문은 아닐까? 기독교와 철학의 대립과 갈등은 서양의 지성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기독교와 철학은 일정 부분 동일한 역사적 정체성과 동일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서양철학 수용 혹은 한국의 기독교의 전파에서 서양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흔적 혹은 기독교가 지닌 서양철학의 흔적이 잘 포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더 많은 한국 근대 기독교 지식인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및 적극적인 주목 못지않게 연구가 더 필요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표 1〉 서양철학 논문 수

	1915- 1929	1930- 1944	1945- 1949	1950-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92	계
책	0	3	63	103	145	305	755	1374
학위논문 (박사)	2	1	5	29	161	231	977	1406
일반논문	2	1	0	0	6	27	147	183
일반논문	59	105	12	108	181	706	2085	3256
전체자료	61	109	80	240	487	1242	3817	6036

	1915-2 9	1930- 44	1945- 49	1950- 59	1960- 69	1970- 79	1980- 92	계
고대초기	0	1	0	1	4	7	45	58
소 플 아-	0	2	3	2	24	82	233	346
고대후기	0	0	0	2	4	9	46	61
중세	0	1	0	3	3	14	47	68
근대 대륙	0	3	0	0	7	48	56	114
근대 영국	0	0	0	0	3	19	54	76
계몽주의	2	1	0	4	5	19	40	71
독일관념론*	5	10	4	25	85	176	654	959
쇼 키 니#	3	1	1	8	31	72	131	247
19세기 독일	2	1	0	3	2	8	33	68
공리주의	1	2	0	1	3	11	20	38
현상학	1	0	0	1	1	46	164	213
실존주의	0	1	4	34	24	54	108	225
하이데거해석학	0	2	1	6	39	67	198	313
현대 독일	0	2	1	7	17	36	105	168
실용주의	0	1	1	21	18	54	111	206
프 러 무 비-	1	0	1	6	9	40	130	187
분석철학	0	1	0	11	27	82	399	520
(후기)구조주의	0	0	0	0	0	3	44	47
현대 프랑스	1	1	1	1	2	20	83	109
비판이론	0	0	0	0	1	19	75	95
마르크스주의	13	17	16	5	10	24	294	379
기타 현대	4	5	1	12	15	16	10	63
미분류	28	58	47	89	159	336	869	1586
계	61	110	81	242	493	1262	3949	6217

* 출처: 이훈, 1994: 121

〈표 1〉 추상적인 철학적 주제 편수

	1915- 1929	1930- 1944	1945- 1949	1950-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92	계
총류	24	40	4	132	189	418	1090	1933
형이상학 존재	7	32	9	31	112	208	633	1032
인식 과학	4	11	6	16	64	142	471	714
언어 방법	1	9	15	18	41	158	683	925
윤리	4	2	7	26	39	167	381	626
사회 역사	15	7	5	10	21	90	465	613
인간 문화	5	8	2	12	40	109	325	501
계	60	109	84	245	506	1,292	4,048	6,344

참고문헌

- 강영안 (1995),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철학용어의 형성 배경", 『철학사상』 5호.
- 김상태 (1996), "일제하 신흥우의 사회복음주의와 민족운동론", 『역사문제연구』.
- 김재현 (1995), "일제하부터 1950년대까지 맑스주의 수용", 『철학사상』 5호.
- 박성진 (2003),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서울: 선인.
- 양현혜 (1994), 『윤치호와 김교신』, 서울: 한울.
- 윤사순·이광래 (2000), 『우리사상 100년』, 서울: 현암사.
- 장동민 (2006), 『박형룡-한국보수신앙의 수호자』, 살림.
- 장동민 (1988), 『박형룡의 신학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 조영란 (1994), "중국과 일본의 서양철학의 수용", 『철학사상』 4호.
- 이나미 (2001), "19세기말 한국자유주의의 친제국주의적 성격", 『아세아연구』 105.
- 이상규 (2005), "박형룡 박사의 한국교회사적 의의", 『역사신학논총』 9집.
- 이준식 (1993), "일제침략기 기독교지식인의 대외인식과 반기독교운동", 『역사와 현실』 10.
- 이훈 (1994), "연구를 위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 『철학사상』 4호.
- Dooyeweerd, Herman (1994), *Vernieuwing en bezinning om het reformatorisch grondmotief*, 『서양문화의 뿌리』, 문석호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Abstract

A Review of Korean Christian Philosophy in the Period of Korea

Han Bin Choi (Baekseok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search for the identity of Korean Christian Philosophy in the period of Korea under Japanese Rule. The period was also in accord with inflow of modern western culture and thought. So, the Korean intelligence of that time were under two important influence. One was Japanese occupation and the other was modern western culture. At that time, for the Korean intelligence, Japanese occupation was a real problem to solve and modern western culture was a kind of real method to use. Modern western philosophy had a special meaning because the philosophy gave new sights to understand the reality and world itself. Because of those all condition, we could expect special features of Korean Philosophy which reflected major subject for the intelligence in those days. Under the main purpose, the paper focuss on Christian intelligence in those days. They could be considered representatives who had influence of modern western thought(philosophy and theology) and culture, and tried to apply it to their own reality in many way. This paper is only to research a representative person of Korean reformed Christian leaders and Korean

presbyterian theologian in the period, Park Hyung Nong .

Key words: Korean Christian Philosophy, Korea under Japanese rule, modern western culture, Christian Intelligence, Park Hyung Nong